

국외출장 보고서

(한국관 재건축 타당성조사 모니터링,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폐막 점검 등)

1. 출장 개요

가. 출장 목적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재건축 타당성 조사사업 연구용역 중간점검
-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문화재보호관리국(소프리텐짜) 관계자 미팅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폐막식 진행사항 점검
-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레지던스 운영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진행
- 주 로마 한국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나. 출장 기간 : 2017. 11. 19(일) ~ 11. 24(금) / 4박 6일

다. 출장 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라. 출장 인원 : 3명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출장 담당업무
	문학시각 예술본부	본부장	김창욱	남	
국제 교류부	대리	변서영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관리국 관계자 미팅 ○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철수 관련사항 점검 	
	사원	권현서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카포스카리대학교, 라사피엔자대학교) 기관 모니터링 및 참가자 면담 ○ 주 로마 한국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미팅을 통한 신규해의 협력기관 발굴 	

2. 출장 일정

구분	날짜	출발 및 도착지	주요 담당 업무	비고
1일	11.19(일)	인천→베니스	○ (출국) 나주 → 인천 → 베니스 * 인천출발(15:10) → 베니스 도착(22:30)	로마경유 (KE931)
2일	11.20(월)	베니스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재건축 관련 업무 진행 - 현지 코디네이터 미팅 및 타당성조사 추진상황 공유 - 만쿠조건축사무소 미팅 및 타당성조사 중간점검 ○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방문 및 미팅 진행	
3일	11.21(화)		○ 한국관 방문 및 점검 - 한국관 전시 폐막 주요사항 점검 - 재건축 진행상황 등 향후 추진사항 논의	

구분	날짜	출발 및 도착지	주요 담당 업무	비고
4일	11.22(수)	베니스→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니스 시청 관계자 미팅 ○ 문화재보호관리국 관계자 미팅 ○ 카포스카리대학교 레지던스 모니터링 및 세종학당 방문 - 카포스카리 대학교 파견작가 면담(박신혜, 김승희) ○ 로마 한국문화원 기획전시 개막식 참석 	기차이동 (13:25 출발)
5일	11.23(목)	로마→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 한국문화원 방문 - 신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레지던스 발굴 논의 ○ 로마 라사피엔자 대학교 레지던스 모니터링 - 라 사피엔자 대학교 파견작가 모니터링(백민석) ○ 인천행 비행기 출발(21:55 출발) 	
6일	11.24(금)	인천	○ 인천공항 도착(17:00)	

3. 주요 면담인사

성명	소속	직위 및 직책	비고
베로니카 라데 (Veronica Rade)	베니스시청	건축가	piergioorgio.canini@comune.venezia.it
프란코 만쿠조 (Franco Mancuso)	만쿠조건축사무소	건축가	mancusoerena@gmail.com
에르네스타 세레나 (Ernesta Serena)	만쿠조건축사무소	건축가	-
마누엘라 루카 다찌오 (Manuela Luca dazio)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미술전·건축전 담당 디렉터	Manuela.Lucadazio@labiennale.org
미콜 살레리 (Micol Saleri)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미술전·건축전 담당 실무자	Micol.Saleri@labiennale.org
끼아라 페로 (Chiara Ferro)	문화재보호관리국	건축가	-
Giuseppina De Nicola	로마 라사피엔자대학교	한국학 조교수	giuseppina.denicola@uniroma1.it

4. 업무 수행 내용

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재건축 타당성 조사사업 연구용역 중간점검

- 일시 : 2017. 11. 20(월) 14:00
- 외부참석자 : 프란코 만쿠조(Franco Mancuso), 에르네스타 세레나(Ernesta Serena), 삐에르루이지 모로(Pierluigi Moro)
- 주요내용

(한국관 제약사항 및 재건축·증개축 추진 가능성)

- 한국관 벽돌건물은 지적도상에 건물번호 18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빗금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제한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호주관, 일본관은

재건축이 가능하고 볼륨도 늘어날 수 있는 구역)

- 한국관은 지어질 당시에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수목을 피해 구불구불한 형태로 지어졌고, 나무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면에서 띄워진 형태로 건축되었음. 점검결과 수목들은 매우 건강한 상태로 이를 베어내고 짓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볼륨을 넓히는 작업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음
-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관에 가능한 공사 범위는 3가지 안으로 압축되며, ①한국관 전면 동근 유리창 옆부분 공간(A)의 확장, ②뒷문쪽 공간(B) 확장, ③A와 B 모두의 확장

(타당성조사 2차 보고서 마무리 진행 관련)

- 한국관에 허용 가능한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문화재 보호관리국의 의견이 중요함. 이에 따라,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수일 내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부수고 다시 짓는 것, 변형에 대한 합법화, 그리고 증개축안에 대해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 각 제안들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 소요예산, 절차, 시간 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보고서에 제출하기로 함. 또한, 2차 보고서 번역본 확인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정요청을 할 경우, 추가 작업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해 주기로 협의함
-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문화재보호관리국, 비엔날레 재단과의 미팅이 종료된 이후에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관계자 미팅

- 일시 : 2017. 11. 20(월) 17:00
- 외부참석자 : 마누엘라 루카 다찌오(Manuela Luca dazio), 미콜 살레리(Micol Saleri)
- 주요내용
 - 자르디니 지역내의 국가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본인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음. 그러나 한국관이 갖고 있는 어려움(협소함, 사무공간·창고 부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한국관 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추진할 예정인 문화재보호관리국과의 미팅에 참석하여 한국관을 둘러싼 여러 제약들과 범위내에서 추진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음
 - 예술위원회는 국가관 운영에 있어서의 행정처리, 규정 준수 등 매우 우수하게 운영을 해주고 있는 국가관임. 아울러, 본전시에 참여하는 한국작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어 재단측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2018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16회 국제건축전 본전시 참여작가 중 한국작가가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길 바람

다. 한국관 건축물 등록 관련한 베니스시청 방문 및 관계자 미팅

- 일시 : 2017. 11. 22(수) 11:00
- 외부참석자 : 베로니카 라데(Veronica Rade)

○ 주요내용

(한국관의 법적 지위)

- 민법 제934조에 의거하여 한국관은 베니스시 소유의 건물이며, 이에 따라 건축물 등록 절차(accatastamento) 역시 시청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함
 - * “935, 936, 937, 938조에 명시되었거나 소유주 및 법에 의해 다르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존재하는 식물 재배, 건축물 및 작품 등은 토지 소유주의 소유가 된다”
- 철골건물이 시청소유로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단, 기존 미등록 기간 중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사용료는 없음)
 - * 한국관이 사용하고 있는 벽돌건물과 토지는 베니스시 소유의 부동산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140유로씩 시청에 납부하고 있음
- 본래 임시건물의 성격으로 지어진 한국관 건물은 “비엔날레 자르디니 지역의 세부 계획안(Piano Particolareggiato Giardini della Biennale)”이 베니스시 의회에 통과되어 영구화된 건물로 1차적인 인정은 받았으나, 이후 시청 건축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향후 절차를 시청에서 누락하여 실질적으로는 영구화된 건물로 최종 인정받지는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는 시청이 해당 절차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측에서 해당 부분을 상세히 확인하기로 함

(향후 한국관 사용 관련한 논의)

- 한국관의 소유가 시청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한국관은 기존처럼 부동산 임대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체결하여 한국관을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자르디니 지역 내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관도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관의 부동산 임대계약 종료일이 2019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시청측에서는 일괄적으로 20~30년 장기 단위의 계약 갱신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 건축물등록절차 진행은 본래 소유권자(시청)가 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측에서 필요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올 경우 빠른 처리가 가능함
- 한국관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조사 완료 후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결정되어 실제 증개축을 시행할 경우, 시청에서는 해당 절차를 협조하여 처리해줄 수 있음

라. 문화재보호관리국(Soprintendenza) 관계자 미팅

- 일시 : 2017. 11. 22(수) 16:30
- 외부참석자 : 끼아라 페로 (Chiara Ferro) 건축가
- 주요내용

(자르디니 지역 건물에 대한 문화재보호관리국 측 입장)

- 문화재보호관리국 측에서는 지어진지 20년이 넘는 건물로 자르디니 내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한국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자르디니 내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 역시 처음에는 임시건물로 지어지고 여러 불편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국가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승화시켜 유지해오고 있음

- 캐나다관의 경우 한국관처럼 철골구조 건물이어서 녹이 스는 등 위험요소가 있어 복원을 하려고 현재 걷어낸 상태인데,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재건설이 될 예정임. 이처럼 국가관이 갖고 있는 건물구조 등은 그 국가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시의 일부로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관 역시 구불구불한 벽면 등 한국관 고유의 특성에 맞추어 전시를 하는 것을 제안

(한국관 증개축 관련 의견)

- 그러나 창고 공간 부족 등 한국관이 현실적으로 맞이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한국관은 지어진지 70년이 넘는 건물이 아니므로 건물의 증개축과 관련해 아주 심한 제한을 받지는 않는 건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 다만, 부피 증가에 대한 허가를 한국관에 주게 되면 타 국가관들의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한국관 뒤편에 불법증축된 창고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한국측에서 서류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도울 예정임

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폐막 관련 모니터링

- 일시 : 2017. 11. 21(화) 11:00
- 주요내용
 - 한국관 전시 폐막이후 작품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5일 철수가 마무리 되면 이후 한국관 복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한국관은 현재까지 약 4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전시폐막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음(11.18(토) 일일관람객 6천명 방문)
 - 한국관 전시 <Counterbalance: The Stone and the Mountain> 컨셉에서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기부프로젝트는 21일 기준으로 약 8,000유로 정도가 모금되었으며 폐막 일정에 맞추어 예술감독 현지 방문시 기부관련한 현지미팅 등 진행할 예정
 - * 기부프로젝트는 이대형 감독이 제안한 전시에서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며, 한국관에 모금함을 설치해 한국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로부터 모금을 진행하였음. We are here Venice(WAHV)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베니스시 해양기록 및 예측센터(Centro Previsioni e Segnalazioni maree-Citta' di Venezia)에 기부하여, 물에 잠겨가는 베니스시 수심측정을 위한 스테이션건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바.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레지던스 운영현황 파악 및 참여작가 모니터링 진행

- 일시 : 2017. 11. 22(수) 16:30
- 외부참석자 : 카포스카리대학교 레지던스 참가자 김승희, 박신혜
- 주요내용

(레지던스 운영 관련)

- 베니스 카포스카리 대학교는 베니스 본섬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지역 특성상 대학도 캠퍼스 개념이 아닌 시내 곳곳에 산개. 레지던스 참여

- 문학 작가들은 90일간 해당 레지던스에 체류하며 한국 문학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함
- 레지던스에 참여하는 가야금 연주자의 경우 세종학당과 카포스카리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가야금 및 전통민요 수업을 진행함
- 숙소의 경우 작가가 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인이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상 카포스카리대학교 측에서 숙소를 탐색해주면 작가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올해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에는 김승희작가, 박신혜연주자가 파견되었으며, 김승희작가는 베니스카포스카리대학교 이외에도 파리 대학, 런던 쏘아스(SOAS)에서 특강과 시낭송을 진행함
- 또한, 로마문화원의 협조를 통해 문화원에서 가야금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김승희작가, 박신혜 연주자가 함께 진행하였음

(참여작가 모니터링)

- 작가 모니터링결과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에서 파견작가들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두르소교수가 장기병가로 인해 프로그램운영이 원활치 않은 점을 수렴, 향후 레지던스프로그램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기획형 레지던스 1차공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향후 추진계획)

- 베니스카포스카리 대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파견작가 의견수렴회 개최를 통해 차기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결정 논의

사. 라사피엔자 대학교 레지던스 운영현황 파악 및 참여작가 모니터링 진행

- 일시 : 2017. 11. 22(수) 16:30
- 외부참석자 : 백민석 작가, 양소진
- 주요내용

(레지던스 운영 관련 모니터링)

- 로마 라사피엔자대학교(Sapienza - Università di Roma)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2012년 MOU를 체결한 이후 해마다 문학작가 1인을 파견하고 있음. 2017년의 경우 백민석 작가가 파견되었고 라사피엔자 대학교 주최로 특강을 2회 진행함
- 라사피엔자대학교에는 현재 한국학 문학관련 담당교수가 부재하고 있어 타 전공 교수들이 돌아가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2019년에 진행하는 세미나 준비로 인해 2018·2019년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라사피엔자대학교 레지던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2020년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견 수렴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레지던스 후보지로 나폴리대학교, 베로나대학교 레지던스를 추천받아 해당 대학교 담당교수를 안내받았으며, 레지던스 협력기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5. 집행경비 : 10,060,372원

가. 국외여비 : 8,681,231원

성명	총계(원)	항공운임(원)	철도운임(원)	제재비(원)		
				일비	숙박비	식비
김창욱	2,928,821	1,797,000	85,812	166,800 (\$30x5일)	571,169 (베니스 410,866원 +로마160,302원)	328,040 (\$59x5일)
변서영	2,870,980	1,797,000	85,812	144,560 (\$26x5일)	571,168 (베니스 410,866원 +로마160,302원)	272,440 (\$49x5일)
권현서	2,881,430	1,797,000	96,262	144,560 (\$26x5일)	571,168 (베니스 410,866원 +로마160,302원)	272,440 (\$49x5일)
계	8,681,231	5,391,000	267,886	455,920	1,713,505	872,920

※ 여비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함(1USD=1,112원)

※ 로마방문은 1일 일정으로, 짧은 체류 일정 내 이동 등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여비규정 제25조 3항에 의거, 숙박비에 대해서는 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함

[여비규정 제25조 3항]

2명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의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일반수용비 : 428,504원

- 출장자 데이터 로밍요금(3인) : 141,604원
- 국내이동 경비 : 286,900원 (나주→인천공항 왕복)

다. 공공요금및제세 : 68,190원

- 여행자보험료(3인) : 68,190원

라. 업무추진비 : 882,447원

- 방문기관 관계자 업무협의 및 파견작가 간담회 등 : 765,627원 (총 9회 진행)
- 현지 업무추진비 : 116,820원

7. 예산과목

-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예술창작역량강화/국제예술교류지원/한국예술세계화/해외문화기관협력/여비/국외여비
-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예술창작역량강화/국제예술교류지원/한국예술세계화/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국외여비
-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예술창작역량강화/국제예술교류지원/한국예술세계화/해외문화기관협력/운영비/일반수용비
-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예술창작역량강화/국제예술교류지원/한국예술세계화/해외문화기관협력/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예술창작역량강화/국제예술교류지원/한국예술세계화/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사업추진비

8. 사진자료



한국관 재건축 타당성조사 2차연구 진행점검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관계자 미팅



베니스시청 방문 관계자 미팅



문화재보호관리국 담당자 미팅



한국관 방문 및 현지시설 점검(확장 가능 부지 확인)



한국관 방문 및 현지시설 점검(확장 가능 부지 확인)



카포스카리대학교 레지던스 참가자 현지활동 모니터링



주roma한국문화원 방문